

순조대 壯勇營 革罷와 東闕 宿衛體制

申明鎬
(부경대 사학과 교수)

- 머 리 말
- 장용영 혁파와 軍營別 宿衛
- 동궐 宿衛體制
- 맺 음 말

1. 머 리 말

1800년 7월 4일 순조가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였다.¹⁾ 이날 대왕대비 김씨의 수렴청정 의식이 창덕궁 熙政堂에서 거행되었다.²⁾ 이후 대왕대비 김씨가 순조초반의 정국을 주도하면서 경주김씨 외척이 득세하기 시작했다.³⁾

- “秋七月甲申<初四日> 王卽位于昌德宮之仁政門”(『순조실록』 1, 즉위년 7월 갑신조).
- “奉大王大妃 行垂簾聽政禮于熙政堂”(『순조실록』 1, 즉위년 7월 갑신조).
- 순조대의 수렴청정 및 세도정치에 대하여는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연구반, 『조선 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
張基俊, 『純祖初期 政局의 動向과 世道政權의 形成』,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2.

대왕대비 김씨는 순조 2년(1802) 1월 20일 장용영 혁파를 명령하였다.⁴⁾ 이를 계기로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용영에 집중되었던 막대한 재물과 군 병력의 재배치를 통해 국가재정과⁵⁾ 軍營制度 및 수도방위체제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장용영의 혁파는 이 같은 정치적, 재정적, 군사적 측면 못지않게 궁궐숙위체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혁파이전의 장용영이 궁궐숙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장용영의 혁파에 따라 기왕의 장용영이 담당하던 궁궐숙위를 다른 병력이 대체해야 했다. 이것은 기왕의 궁궐숙위체제를 연쇄적으로 변동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형성된 궁궐숙위체제는 장용영이 존속하던 때의 궁궐숙위체제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은 장용영 혁파 후에 성립된 東闕의 숙위체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즉 장용영 혁파 후 동궐 숙위를 담당하는 각 병력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병력들은 구체적으로 궁궐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아울러 그것이 전체 궁궐숙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런 점들이 해명되면 장용영 혁파 후에 정비된 동궐 숙

金明淑, 「19세기 정치사 이해과정에 대한 검토」, 『同大史學』 1, 1995.

金明淑, 『世道政治期の 政治行態와 政治運營論』,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吳洙彰, 「世道政治의 성립과 전개」,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임혜련, 「純祖初半 貞純王后의 垂簾聽政과 政局變化」, 『조선시대사학보』 15, 2000 참조.

4) “命罷壯勇營”(『순조실록』 4, 2년 1월 임진조).

5) 장용영 혁파와 국가재정에 관하여는

송찬섭, 「正祖代 壯勇營穀의 設置와 運營」, 『한국문화』 24, 1999.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32, 2001 참조.

6) 장용영 혁파와 군영제도 및 수도방위체제의 변화에 관하여는

李泰鎭,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한국연구원, 1985.

裴祐星, 「純祖前半期の 政局과 軍營政策의 推移」, 『규장각』 14, 1991.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심승구, 「19세기 전반 군영의 변동과 수도방위체제의 변화」,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참조.

위체제의 구도 및 그 구도의 정치적, 군사적 특징과 의미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장용영 혁파 후의 동궐 숙위체제는 다음의 자료들을 이용해 검토하였다. 먼저 정조대 및 순조대의 궁궐숙위체제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서, 영조대에 편찬된 『續大典』과 정조대에 편찬된 『大典通編』의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당시의 숙위실상은 숙위를 담당했던 각 軍營들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순조대에 작성된 『東闕圖』와 『萬機要覽』은 장용영 혁파 후 형성된 동궐의 숙위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이외에 실록, 비변사등록 등의 연대기 자료들도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다.

영조, 정조 및 순조대의 동궐 숙위병력은 기본적으로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入直條에 실려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법전의 입직조에 규정되어 있는 병력들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2. 장용영 혁파와 軍營別 宿衛

(1) 장용영의 혁파

장용영은 순조 2년(1802) 1월 20일 대왕대비 김씨의 명령에 의해 혁파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⁷⁾ 대왕대비 김씨는 정조의 國葬에 소용되는 경비를 장용영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며⁸⁾ 순조 1년(1801) 1월 28일에 발표된 공노비 혁파에서 발생하는 손실분도 장용영에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⁹⁾

7)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224쪽.

8) 『순조실록』 1, 즉위년 12월 경신조.

장용영의 혁파는 순조 2년 1월 20일의 入侍에서 영의정 沈煥之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심환지는 정조의 다음과 같은 언급, 즉 ‘지금 나의 이 조치는 부득이한 것이다. 지금 좌우에서 호위하게 하는 것은 모두 한 때의 權宜에서 나온 것이니, 후세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¹⁰⁾는 말을 명분으로 장용영의 혁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좌의정, 우의정 등 참석자들이 찬성함으로써 대왕대비 김씨가 혁파명령을 내린 것이었다.¹¹⁾

이어서 1월 23일에 비변사에서는 ‘壯勇營撤罷別單’을 올렸는데,¹²⁾ 撤罷의 기준은 대체로 장용영의 관원과 군사 중에서 신설된 경우는 혁파하고 移劃된 경우는 還屬하는 것이었다.¹³⁾ 이에 따라 장용영에 移劃되었던 기존 군영의 요원과 군사는 모두 본영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장용영 설치 이전 영조대에 갖추어졌던 도성수비체제로서의 三軍門體制가 대체로 회복될 수 있었다.¹⁴⁾

영조대 궁궐숙위의 기본 골격은 『속대전』 입직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속대전』은 영조 22년(1746) 4월에 간행되었으므로, 이 규정은 영조 22년 경의 궁궐숙위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에 의하면, 궁궐숙위는 四所의 衛將과 部將, 內兵曹와 五衛都總府, 宣傳官, 禁軍, 扈衛廳, 忠壯衛, 忠翊衛, 守門將, 訓練都監, 禁衛營, 局別將 등이 담당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우선 사소의 위장과 부장은 東所, 西所, 南所, 北所에 각각 1명씩 입직하였다.¹⁵⁾ 내병조와 오위도총부의 경우에는 병조의 당상관 1명과 낭관 1명

-
- 9) 『순조실록』 1, 1년 1월 을사조.
 10) “同日入侍時 領議政沈所啓(중략) 予之此舉 非得已也 凡今左右警御 皆出於一時權宜 後世不可以此爲法”(『비변사등록』 순조 2년 1월 20일조).
 11) 『비변사등록』 순조 2년 1월 20일조.
 12) “壯勇營撤罷別單”(『비변사등록』 순조 2년 1월 22일조).
 13)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225쪽.
 14)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226쪽.

그리고 도총부의 당상관과 낭관 각 2명이 中所에 입직하였다.¹⁶⁾ 선전관 4명과 武兼 6명은 大內近側에 입직하였다.¹⁷⁾ 금군의 경우는 금군장 1명이 금군 100명과 火砲 2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으며, 호위청의 경우는 호위별장 1명이 군관 30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고, 충장위의 경우는 忠壯將 1명이 충장위 3명을, 충익위의 경우는 忠翊將 1명이 충익위 5~10인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¹⁸⁾ 수문장은 9명이 각 문을 分直하였다.¹⁹⁾ 훈련도감은 把摠 2명과 哨官 2명이 포수 200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으며, 금위영은 초관 1명이 군사 114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고, 국별장은 局出身 45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²⁰⁾ 이외에 영조 9년 4월에 정해진 3군문의 宮牆外 別巡邏가 있었다.²¹⁾ 따라서 영조대의 궁궐숙위는 3군문의 궁장의 별순라, 수문장의 궁성문 수위, 금군과 호위청 및 훈련도감과 금위영 등의 궁성내 숙위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즉위 후 궁궐숙위를 강화하고자 宿衛所, 장용영 등을 설치하였다.²²⁾ 정조의 궁궐숙위 강화는 전체적으로 숙위병력을 증강

15) “五衛將四員 部將四員 分直東西南北四所”(『속대전』 병전, 임직조).

16) “本書堂上官郎官各一員 都摠府堂上官郎官各二員 直中所”(『속대전』 병전, 임직조).

17) “宣傳官四員 武兼六員 直大內近側”(『속대전』 병전, 임직조).

18) “禁軍將一員<受點率禁軍百人 火砲二人> 扈衛別將一員<率軍官三十人> 忠壯將一員<率衛三人> 忠翊將一員<率衛六七十人 或十人> 別軍直三員 各直本所”(『속대전』 병전, 임직조).

19) “守門將九員<受點> 分直各門”(『속대전』 병전, 임직조).

20) “訓練都監把摠二員 哨官二員<受點 率砲手二百人> 禁衛營哨官一員<受點 率軍士一百四十四人> 局別將一員<受點 率局出身四十五人> 分直各所”(『속대전』 병전, 임직조).

21) “命三營 環宮牆 定信地 別巡邏<訓營 自集春營止 大報壇西牆隅 禁營 自宗廟大門西邊至大報壇西牆隅 御營 自宗廟大門東邊至集春營>”(『영조실록』 34, 9년 4월 경오조).

22) 정조대의 장용영에 대하여는

李泰鎮, 「正祖代의 王權強化와 壯勇營 經營」,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한국연구원, 1985.

裴祐星, 「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한국사론』 24, 1991.

「三軍門 都城守備體制的 確立과 그 變遷」,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장필기,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

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특정한 지점의 숙위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동궐의 지리적 위치와 직결되었다.

예컨대 동궐의 建陽門 동편에 설치된 숙위소는²³⁾ 건양문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했다. 건양문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중간 지점으로서 동궐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 숙위소를 설치해야 동궐 전체의 숙위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지휘기능을 높일 수도 있었다.

숙위소 혁파 후 동궐 숙위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던 정조는 武藝出身 30명을 뽑아 明政殿 西月廊에 입직하게 하였는데,²⁴⁾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이었다. 정조는 즉위 후 주로 창경궁에서 거처하였으므로, 명정전의 서월랑에 입직하는 무예출신은 금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이 무예출신을 확대하여 정조는 壯勇衛로 또 장용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장용영의 청사는 종묘 앞쪽인 梨峴 부근에 있었고,²⁵⁾ 직방은 宣仁門 밖에 있었다.²⁶⁾ 장용영 청사에는 장용위 35명 등이 입직하였으며²⁷⁾ 직방에는 善騎隊 20명과 哨軍 10명 등이 입직하였다.²⁸⁾ 장용영 직방의 입직군은 창경궁의 궁장 밖 巡緝도 담당하였다.²⁹⁾ 이는 장용영이 창덕궁보다는 창경궁

연구소, 1998.

송찬섭, 「正祖代 壯勇營의 設置와 運營」, 『한국문화』 24, 1999.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논문집』 32, 2001.

김준혁, 「正祖代 壯勇營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 78, 2005 참조.

23) 「置宿衛所于建陽門東」(『정조실록』 4, 1년 11월 정축조).

24)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200쪽.

25) “壯勇營<丁未冊 ○以梨峴舊宮 移屬添建>”(『壯勇營大節目』 1, 廳舍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26) “本廳直房 定於宣仁門外”(『壯勇廳節目抄』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71).

27) “壯勇衛牌頭一人 率壯勇衛三十五人 入直該廳”(『壯勇營大節目』 1,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28) “善騎將領軍哨官中一員<輪回入直> 付料武士二人 率善騎隊二十名 哨軍十名 入直於直房”(『壯勇營大節目』 1,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숙위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은 장용영의 입직군이 주로 창경궁에서 숙위하였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정조대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의하면 명정전 서월랑에는 12명의 장용위가 입직하였다.³⁰⁾ 명정전 서월랑에 입직하는 12명의 장용위는 이전의 무예출신 30명이 담당하던 입직을 대체한 것으로서, 이것은 기왕의 무예출신 30명의 임무를 장용위에서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장용위 2명이 銅龍門 입직군 5명을 거느리고 주야로 건양문을 파수하였는데,³¹⁾ 이 5명의 군사는 금위영 소속이었다.³²⁾ 후에는 장용영의 別武士 2명이 월내입직 禁衛軍 10명을 거느리고 건양문에 입직하였다.³³⁾ 또한 초관 1명이 초군 20명을 거느리고 集禮門에 입직하였다.³⁴⁾

집례문은 창경궁의 정문인 弘化門 안의 남서쪽에 있던 문이었다. 따라서 이곳의 장용영 입직군은 창경궁의 명정문 앞쪽을 숙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집례문의 장용영 입직군은 명정전 서월랑의 장용영 입직군과 함께 창경궁의 정전을 숙위하였던 것이다.

또한 동룡문은 창경궁의 선인문 안쪽에 있던 문이다. 그러므로 선인문에서 들어온다면 바로 동룡문을 거쳐 창경궁의 중심부인 文政殿이나 崇文堂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에서 명정전 서월랑, 집례문, 동룡문의 장용영 입직군은 기본적으로 창경궁 숙위가 주 임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宮牆巡綽 則入直哨官及付料武士二人 分更舉行”(『壯勇營大節目』 1,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30) “壯勇衛十二人 入直于明政殿西月廊”(『대전통편』 병전, 입직조).

31) “銅龍門內入直軍兵中 除出五名 使壯勇衛二人 領率勿論晝夜 把守建陽門”(『대전통편』 병전, 입직조).

32) “建陽門入直段 依禁衛哨官把守例 壯勇衛二人 率禁衛軍五名入直是白乎矣”(『壯勇廳節目抄』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71).

33) “別武士二人 率內入直禁衛軍十名 入直於建陽門”(『壯勇營大節目』 1,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34) “哨官一員 率哨軍二十名<鄉軍上番 則鄉軍五名 京軍十五名> 入直御集禮門”(『壯勇營大節目』 1,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한편 장용영이 금군의 역할을 떠맡게 되자 기존의 금군조직에 변동이 나타났다. 정조 15년(1791) 5월에 용호영은 병력 700명 중에서 100명을 장용영에 넘겨주고 600명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금군장 1명이 금군 100명과 火炮 2명을 거느리고 입직하던 것에서 입직군이 5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³⁵⁾ 이것은 궁궐숙위에서 용호영의 역할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었음을 의미하며, 줄어든 역할을 장용영에서 대신하였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조 17년(1793) 1월에는 기존의 扈衛廳을 장용영에서 흡수, 통합함으로써, 궁궐숙위에서의 장용영 역할은 더욱 증대하였다.³⁶⁾ 호위청은 인정문 밖의 월랑에서 숙위하였으므로,³⁷⁾ 장용영은 동궐의 명정전 서월랑, 집례문, 건양문, 인정문 밖의 월랑 등 동궐 내부의 중요 지점 숙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궁궐숙위에서 장용영의 비중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鄉軍 停番이 빈번해짐으로써 더욱 커졌다. 현종대 흉년이나 전염병 등 자연적인 이유로 정변되기 시작하던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은 정조대 장용영의 内外營制 성립을 계기로 재정조달 목적으로 수시 정변되었다.³⁸⁾ 순조대에 들어서서도 즉위년에 정변되기 시작한³⁹⁾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은 장용영이 혁파되던 때까지⁴⁰⁾ 2년간 정변 상태에 있었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이 정변되면, 이들의 궁궐 숙위임무는 장용영과

35) “敎曰(중략) 自今 禁軍番數 以內禁羽林兼司僕 各二番復舊定制 每番以五十人輪番 餘一百屬之壯營”(『壯勇營故事』 2, 辛亥五月二十六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8).

36)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203-204쪽.

37) “軍官入直所 在於仁政門外月廊”(『扈衛廳謄錄』 壬戌(숙종 8)八月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93).

38) 「鄉軍의 停番과 常住京軍 確保」(『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228-234쪽.

39) 『日省錄』 순조 즉위년 8월 4일조.

40) “兵曹啓曰 今此行幸時 隨駕軍兵 當爲磨鍊矣 禁御兩營鄉軍 則今既停番”(『禁衛營舉動謄錄』 壬戌(순조 2)正月初四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288).

훈련도감에서 대체하였다. 예컨대 금위영에서 입직하던 홍화문에는 금위영의 입직군이 감축되고 그 대신 장용영의 보군 50명이 입직하였다.⁴¹⁾ 이외에 금위영에서 입직하던 동룡문, 西營, 廣智營에는 훈련도감의 병력이 입직하였고,⁴²⁾ 어영청에서 입직하던 東營, 集春營에는 훈련도감 또는 총융청, 수어청의 병력이 입직하였다.⁴³⁾

따라서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이 수시로 정변되던 정조 이후에는 사실상 궁궐숙위의 임무는 장용영과 훈련도감 및 금군이 전담했다고 할 수 있다.

장용영이 혁파되던 순조 2년 1월 20일 당시에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이

<표 1> 장용영 혁파이전, 장용영과 3군문의 궁궐숙위와 입직⁴⁴⁾

	금위영, 어영청의 鄉軍入番時	금위영, 어영청의 鄉軍停番時
장 용 영	明政殿 西月廊, 仁政門 밖 月廊, 集禮門, 建陽門(장교), 銅龍門(장교)	금위영의 弘化門 代直
훈련도감	金虎門, 集賢門, 永肅門, 明禮門 =南營	금위영의 銅龍門, 西營, 廣智營 代直 어영청의 東營, 集春營 代直
금 위 영	弘化門, 建陽門, 銅龍門 西營, 廣智營	弘化門(감축), 建陽門(추가) (그 외는 장용영, 훈련도감 代直)
어 영 청	東營, 集春營	없음(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代直)

41) “敎以弘化門銅龍門番 則取考近例 與壯勇大將往復 更爲論理草記 又啓言 往復於壯勇大將金持默 則以爲 辛亥年禁衛營鄉軍停番時 本營步軍五十名 入直於弘化門 今番亦依此 限停番間舉行”(『壯勇營故事』 5, 甲寅(정조 18)十一月初四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8).

42) “敎以今則弘化門 都監軍既不入番 西營廣智營 不必以無料他營軍 給料代直 以都監軍仍置銅龍門 則以金虎門近來加入軍中 依本營鄉軍名數入番事 分付”(『壯勇營故事』 5, 甲寅(정조 18)十一月初四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8).

43) “訓鍊都監啓曰 集春營東營入直 以摠戎廳京標下軍各三十名 御營廳哨官率領 今初九日爲始 與本局軍替代入直事 自御營廳草記矣”(『御營廳謄錄』 84, 甲寅(정조 18)十一月初三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49).

44) <표 1>은 군영등록, 『만기요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정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용영이 혁파되자 장용영이 담당했던 궁궐 숙위 임무를 다른 부대가 인수인계해야 했다. 이에 비변사에는 1월 22일 啓를 올려 장용영의 궁궐숙위 임무를 인수인계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장용영의 숙위병력은 그대로 숙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하여 허락을 얻었다.⁴⁵⁾ 따라서 장용영 혁파는 1월 20일 결정되었지만, 궁궐숙위가 변동될 때까지 장용영의 궁궐숙위는 계속되었다.

(2) 訓練都監의 숙위

장용영 혁파가 결정된 지 3일 후인 1월 23일, 비변사에서는 啓를 올려 장용영의 첩파에 따른 궁궐숙위 변통을 병조가 전례를 참고해 마련하도록 하자고 하여 허락을 얻었다.⁴⁶⁾ 또한 1월 28일에 대왕대비 김씨는 장용영이 담당하던 궁내 숙위를 무예별감이 대체하도록 하고, 부족한 수 27명을 보충하도록 하였다.⁴⁷⁾ 아마도 무예별감은 장용영에서 입직하던 명정전 서열랑에 입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순조 2년에 무예별감 58명을 증원하였다고 하는데,⁴⁸⁾ 이는 장용영의 혁파에 따른 궁궐숙위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2월 9일, 병조에서는 계를 올려 장용영의 첩파에 따른 궁궐숙위의 변통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훈련도감과 금위영이 관련되었다.⁴⁹⁾

45) “司啓曰(중략) 內外入直軍校 亦令姑爲依前舉行何如 答曰允”(『비변사등록』 순조 2년 1월 22일조).

46) “司啓曰(중략) 該營將官軍兵之闕內入直處 勢當以他營門將官軍兵替代 令兵曹參考已例 卽爲稟旨舉行 以嚴宿衛何如 答曰允”(『비변사등록』 순조 2년 1월 23일조).

47) “大王大妃教曰 先王朝闕內各處宿衛 皆以壯營爲之矣 今則宿衛之嚴 比昔日尤當自別 而壯營旣罷之後 則宿衛諸處 皆當以武藝別監定立 而聞額數不足爲二十七名云 武藝別監當以加抄以準此數 而不必新選生疎之人 以本營退出之人 充定其額 則宿衛之慣熟 似當勝於他人 以此舉行可也”(『순조실록』 4, 2. 28. 경자조).

48) “武藝別監<(중략) 當壬戌 增五十八>”(『만기요람』 군정편 2, 訓練都監, 軍摠條).

49) “兵曹啓曰 謹依下教 入直局出身四十五人內 二十人 分直於昌慶宮 弘化門內各處入直及訓練

훈련도감의 병력 중에서는 ‘局出身’, ‘金虎門 添直軍’, ‘西營 移直軍’, ‘廣智營 添直軍’⁵⁰⁾ 등이 관련되었다.

먼저 永肅門에 입직하던 45명 국출신의 숙위임무가 변동되었다. 즉 45명 중에서 25명은 그대로 영숙문에 입직하게 하고 나머지 20명은 초관이 거느리고 장용위가 入接하던 창경궁으로 分直하게 한 것이었다.⁵¹⁾ 『만기요람』에 의하면 초관이 거느린 20명의 국출신은 崇智門에 입직한다고 하였으므로,⁵²⁾ 순조 8년 이후 국출신 20명이 分直한 곳은 바로 송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송지문은 홍화문 안쪽의 북서쪽에 있던 문으로 집례문 맞은편에 있었다.⁵³⁾

그러므로 국출신 20명은, 기왕의 장용영 초관 1명이 초군 20명을 거느리고 집례문에 입직하던 임무를 대체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⁴⁾ 다만 훈련도감의 국출신 20명이 순조 2년부터 송지문에 입직하였는지, 아니면 순조 2년 당시에는 집례문에 숙직하다가 순조 8년부터 송지문으로 옮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훈련도감의 무예별감과 국출신이 장용영이 담당하던 명정전 서월랑과 집례문의 숙위를 대체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都監禁衛營軍兵入直處所 依備邊司草記 參考前例 磨鍊以入之意 敢啓(『訓局謄錄』 49, 壬戌(순조 2)二月初九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400).

- 50) ‘金虎門 添直軍’, ‘西營 移直軍’, ‘廣智營 添直軍’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이 정변됨으로써 금위영과 어영청의 병력이 담당하던 숙위임무를 훈련도감에서 대체한 상황을 나타낸다. 즉 ‘金虎門 添直軍’은 금호문에 추가 배치된 훈련도감의 병력이고, ‘西營 移直軍’은 서영으로 옮겨서 입직하던 훈련도감의 병력이며, ‘廣智營 添直軍’은 광지영에 추가 배치된 훈련도감의 병력이다.
- 51) “兵曹爲相考事 局出身二十五人 別將率領 永肅門外 依前入直 二十人 訓局哨官 率領分直於 壯勇衛入接處”(『訓局謄錄』 49, 壬戌(순조 2)二月初九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400).
- 52) “局出身四十五人內 永肅門 二十五人 崇智門 二十人”(『만기요람』 군정편 2, 훈련도감, 各處入直條).
- 53) “弘化門(중략) 北行闕(중략) 東有十字闕光德門及水闕 西有崇智門”(『宮闕志』 장서각 도서분류 2-4361).
- 54) “哨官一員 率哨軍二十名<鄉軍上番 則鄉軍五名 京軍十五名> 入直御集禮門”(『壯勇營大節目』 1, 入直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69).

아울러 금호문에 추가 배치되었던 훈련도감의 병력 50명과 서영에 옮겨서 입직하던 훈련도감의 병력 50명 합 100명은 초관이 거느리고 이전대로 홍화문 南邊直所에 입직하게 하였다.⁵⁵⁾ 또한 광지영에 추가 배치되었던 훈련도감의 병력 15명은 초관이 거느리고 이전대로 집현문에 입직하게 하였다.⁵⁶⁾ 훈련도감 병력의 영숙문과 송지문 입직, 홍화문 입직, 집현문 입직은 병력 수와 장소가 그대로 『만기요람』에 수록되었다.⁵⁷⁾

이외에 『만기요람』에 의거하여 훈련도감 병력의 궐내 입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금호문에는 훈련도감의 과총 1명, 초관 1명이 보군 100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으며,⁵⁸⁾ 明禮門에는 漢旅 33명이 입직하였다.⁵⁹⁾

훈련도감의 병력은 궐내 입직 이외에도 궁성 밖의 입직도 담당하였다. 남영과 광지영의 입직이 그것이었다. 동궐의 정문인 敦化門 밖에 있던⁶⁰⁾ 남영에는 훈련도감의 초관 1명이 別騎隊 2명과 마병 53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⁶¹⁾ 鷹峯 아래에 있던 광지영에는⁶²⁾ 훈련도감의 초관 1명이 50명의 보군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⁶³⁾

따라서 동궐의 숙위에 동원된 훈련도감의 병력은 금호문에 102명, 홍화문에 101명, 집현문에 16명, 영숙문에 25명, 송지문에 21명, 명례문에 33명

55) “金虎門添直是白在訓局軍五十名 及西營移直訓局軍五十名 訓局哨官率領 弘化門南邊直所 依前入直”(『訓局騰錄』 49, 壬戌(순조 2)二月初九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400).

56) “廣智營添直是白在訓局軍十五名 除出 訓局哨官率領 集賢門外 依前入直”(『訓局騰錄』 49, 壬戌(순조 2)二月初九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400).

57) 『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各處入直條.

58) “金虎門 把總一員 哨官一員<率步軍一百名>”(『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各處入直條).

59) “漢旅三十三<(중략)定宗庚戌 改稱漢旅 使入直於明禮門>”(『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軍總條).

60) “南營<在敦化門外 三十二間>”(『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公廩條).

61) “南營 哨官一員<率別馬隊二人 馬兵五十三名 立馬每日十八匹>”(『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各處入直條).

62) “廣智營<在鷹峯下 十五間>”(『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公廩條).

63) “廣智營 哨官一員<率步軍五十名>”(『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各處入直條).

등 궐내 입직군 298명과 남영에 56명, 광지영에 51명 등 궐외 입직군 107명을 합한 405명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3) 禁衛營과 御營廳의 숙위

장용영 혁파 후 금위영의 궁궐숙위 병력도 입직장소가 변동하였다. 금위영의 병력은 기왕의 건양문 입직군, 홍화문 입직군, 집현문 파수군, 동룡문 입직군 등이 관련되었다.

장용영 혁파 후 보름쯤 지난 2월 9일 병조에서 올린 계에 의하면, 금위영의 건양문 입직군 40명은 초관이 거느리고 서영으로 옮겨서 입직하게 하였다.⁶⁴⁾ 서영은 동궐의 서쪽 궁성 중간쯤에 위치한 景秋門 건너편에 있었으므로,⁶⁵⁾ 이곳의 금위영 병력은 궐외 입직군이었다.

홍화문 입직군 40명, 집현문 파수군 8명, 건양문 첨입군 5명 합 53명은 초관이 거느리고 건양문에 입직하게 하였으며,⁶⁶⁾ 건양문 입직군 중에서 10명을 건양문 파수군으로 차출했다.⁶⁷⁾ 동룡문 입직군 31명은 초관이 거느리고 그대로 동룡문에서 입직하게 하였다.⁶⁸⁾ 건양문과 동룡문에 입직한 금위영 병력은 물론 궐내 입직군이었다.

그런데 『만기요람』에는 서영 입직군을 제외한 건양문 입직군, 동룡문 입직군이 병력 수에서 약간 변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서영에는 금위영의

64) “啓曰 依兵曹節目 今二月十一日 建陽門入直軍四十名 哨官率領 依前移直於西營”(『禁衛營騰錄』 79, 壬戌(순조 2)二月十一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292).

65) “西營在景秋門越邊 十一間半”(『만기요람』 軍政編 2, 禁衛營, 公廩條).

66) “啓曰(중략) 弘化門入直軍四十名 集賢門把守軍八名 建陽門添入軍五名 把總率領 依前入直於建陽門”(『禁衛營騰錄』 79, 壬戌(순조 2)二月十一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292).

67) “建陽門把守軍十名 以建陽門入直軍 依前除出”(『禁衛營騰錄』 79, 壬戌(순조 2)二月十一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292).

68) “啓曰(중략) 銅龍門入直軍三十一名 哨官率領 仍爲入直”(『禁衛營騰錄』 79, 壬戌(순조 2)二月十一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292).

초관 1명이 향군 40명을 거느리고 입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⁶⁹⁾ 건양문에는 파총 1명이 敎師 1명과 향군 74명을 거느리고 입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⁷⁰⁾ 단 別武士 2명이 거느리는 건양문의 파수군 10명은 동일하게 나타난다.⁷¹⁾ 동룡문에는 초관 1명이 향군 37명을 거느리고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⁷²⁾ 이는 『만기요람』이 편찬될 당시에 장용영 혁파 때보다 금위영의 궐내 입직군이 30명 늘어난 셈이었다.

따라서 『만기요람』을 기준으로 할 때, 동궐의 숙위에 동원된 금위영의 병력은 건양문에 78명, 동룡문에 38명 등 궐내 입직군 116명과 서영의 궐외 입직군 41명을 합한 167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용영의 혁파가 어영청의 궁궐숙위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어영청의 궐내 입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어영청은 궐외 입직만 담당했던 것이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어영청에서는 동궐의 동영과 집춘영에 입직했다. 동궐의 동영은 선인문 아래에 있었는데,⁷³⁾ 이곳에는 기사장 1명, 파총 1명, 초관 1명이 기사 25명과 향군 61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⁷⁴⁾ 집춘문 바깥쪽에 있던 집춘영에는,⁷⁵⁾ 초관 1명이 향군 50명을 거느리고 입직하였다.⁷⁶⁾ 따라서 『만기요람』을 기준으로 할 때, 동궐의 숙위에 동원된 어영청의 병력

69) “西營 哨官一員<率鄉軍四十名 內五名 景秋門把守>”(『만기요람』 軍政編 2, 禁衛營, 各處入直條).

70) “建陽門 把總一員<率敎師一名 鄉軍七十四名>”(『만기요람』 軍政編 2, 禁衛營, 各處入直條).

71) “建陽門把守 別武士二人<率鄉軍十名 以建陽門入直軍 輪把>”(『만기요람』 軍政編 2, 禁衛營, 各處入直條).

72) “銅龍門 哨官一員<率鄉軍三十七名>”(『만기요람』 軍政編 2, 禁衛營, 各處入直條).

73) “東營二<一在宣仁門下 七十四間 一在慶熙宮開陽門下 十間>”(『만기요람』 軍政編 2, 御營廳, 公廡條).

74) “東營 騎士將一員 把總一員 哨官一員 騎士二十五人<立馬 初日九匹 中終日各八匹> 鄉軍六十一名<復番間 今四十四名>”(『만기요람』 軍政編 2, 御營廳, 各處入直條).

75) “集春營<在集春門外 十六間>”(『만기요람』 軍政編 2, 御營廳, 公廡條).

76) “集春營 哨官一員 鄉軍五十名<復番間 今四十四名>”(『만기요람』 軍政編 2, 御營廳, 各處入直條).

은 동영에 89명, 집훈영에 51명 등 궐외 입직군 140명이었다.

(4) 扈衛廳과 龍虎營 및 기타병력의 숙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호위청은 정조 17년(1793) 1월에 장용영에 흡수, 통합되었다. 인조반정 당시 4청이었던 호위청은 현종대에 3청으로 줄었는데, 숙종대에 4청으로 복구되었다가 다시 3청으로 축소되었다. 호위청은 정조 2년(1778)에 다시 1청으로 축소되었는데,⁷⁷⁾ 장용영에 흡수, 통합될 때까지 이 규모를 유지했다.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호위청은 다시 1청 규모로 분리, 복구되었다. 이때 장용영의 牢子 10명, 巡令手 10명, 燈籠軍 10명 등 30명이 호위청에 이속되었다.⁷⁸⁾

『만기요람』에 의하면 호위청의 병력 중에서 궁궐숙위를 담당한 병력은 400명의 군관이였다. 400명의 군관은 서울에 定住하면서 궁술에 능한 자들을 대상으로 각 領將이 책임지고 선발하였다.⁷⁹⁾ 이렇게 선발된 400명의 군관은 매달 1일에 궁술을 시험보아 95명이 有給者로 선발되었다. 95명 중에서 90명은 3번으로 나뉘어 궁중에 입직하고 나머지 5명은 윤번으로 大將所에 입직하였다.⁸⁰⁾ 궁중에 입직하는 30명의 군관 중에는 3명의 領將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궁중에 입직하는 호위청의 군관은 별장까지 합하여 31명으로서 이들은 인정문 밖 월랑에 입직하였다.⁸¹⁾

77) 『만기요람』 軍政編 1, 扈衛廳條.

78) “壯勇營罷後 移屬本廳 牢子十名(중략) 巡令手十名(중략) 燈籠軍十名”(『扈衛廳營錄』 5, 壬戌(순조 2)二月二十三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90).

79) “以都下有根着精射藝者 各領將懸保抄填”(『만기요람』 軍政編 1, 扈衛廳條).

80) “軍官四百 而料菓爲九十五 每朔試射<別將監試>付料<各米十斗> 九十員分三番<每番三領將并三十員>入直于闕內 五員輪直於大將所”(『만기요람』 軍政編 1, 扈衛廳條).

81) “軍官入直所 在於仁政門外月廊”(『扈衛廳營錄』 壬戌(숙종 8)八月日條, 장서각 도서분류 2-3393).

용호영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조 15년에 병력 100명을 장용영에 넘겨 주고 6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입직군도 50명으로 줄어들었다. 용호영은 장용영이 혁파될 때 600명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순조 8년(1808)에 700명으로 복구되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용호영의 금군은 매번 100명이 인정전 월랑에 입직하였으며,⁸²⁾ 이들은 1명의 番將이 지휘하였다. 따라서 용호영 병력 중에서 실제 입직하는 병력은 금군 100명과 번장 1명을 합하여 총 101명이었다.

이외에도 동궐에 입직하는 병력에는 도총부 지휘관과 4소 입직군, 수문장과 수문병, 선전관, 내병조 입직관 등이 있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도총부의 지휘관에는 도총관 5명과 부총관 5명 등 10명이 있었으며, 낭청에 경력 6명과 도사 6명 등 12명이 있었다. 또한 위장이 15명, 부장이 25명이었다.⁸³⁾ 이들 중에서 당상관과 낭청 각 2명은 궁중의 도총부에 번갈아 입직하였는데,⁸⁴⁾ 도총부에는 병조의 近仗軍 10명이 입직하였다.⁸⁵⁾ 궁중 안의 4소에는 위장과 부장 각 1명이 입직하였다.⁸⁶⁾ 이외에 서소에는 충찬위 2명, 동소에는 충장위 3명이 주야로 입직하였다.⁸⁷⁾ 4소의 입직군은 번상기병으로서, 각각 5명씩 배속되었다.⁸⁸⁾ 따라서 동궐에 입직하는 도총부 지휘관과 4소 입직군은 도총부에 14명, 4소에 33명 등 총 47명이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수문장은 왕의 낙점을 받은 9명이 동궐의 각 문에 나뉘어 입직하였다.⁸⁹⁾ 『동궐도』에 의하면 수문장이 근무하는 수문장청은 통

82) “每番百人 入直於仁政殿月廊”(『만기요람』 軍政編 2, 龍虎營, 各處入直條).

83) “衛將十五員 部將二十五員”(『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84) “入直<堂上郎廳 各二輪回>”(『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都摠府條).

85) “本曹近仗軍十人 隨直”(『속대전』 병진, 입직조).

86) “入直<四所 衛將部將 各一員 每三日輪回>”(『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87) “闕內東西所<西所 忠贊衛二人 東所 忠壯衛二人 晝夜輪直>”(『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各掌事例, 有廳色條).

88) “東所<五> 西所<五> 南所<五> 北所<五>”(『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 二軍色, 騎兵分把條).

89) “守門將九員<受點> 分直各門”(『속대전』 병진, 수문장청조).

화문, 홍화문, 선인문, 돈화문, 단봉문, 금호문, 경추문, 요금문 및 미상 1 곳이다. 동궐의 9명 수문장은 수문병들을 거느리고 이 문들을 수위하였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수문장이 거느리는 수문병은 통화문에 9명, 홍화문에 4명, 선인문에 10명, 돈화문에 17명, 단봉문에 10명, 금호문에 13명, 경추문에 4명, 요금문에 7명 배치되었다.⁹⁰⁾ 따라서 동궐에서 확인되는 수문장과 수문병은 각각 9명, 74명이다.

선전관 중에서 입직하는 인원수는 『속대전』에 선전관 4명과 武兼 6명을 합하여 10명이었으며 吹螺赤 8~10인이 함께 입직하였는데, 『대전통편』에는

<표 2> 장용영 혁파 후 동궐숙위군의 입직장소

		장용영 혁파이전의 숙위	장용영 혁파이후의 숙위
장 용 영	궐내	明政殿 西月廊, 仁政門 밖 月廊, 集禮門, 建陽門(장교), 銅龍門(장교)	폐지
훈련도감	궐내	金虎門, 集賢門, 永肅門, 明禮門	金虎門, 弘化門, 集賢門, 永肅門, 崇智門, 明禮門
	궐외	南營	南營, 廣智營
금 위 영	궐내	弘化門, 建陽門, 銅龍門	建陽門, 銅龍門
	궐외	西營, 廣智營	西營
어 영 청	궐외	東營, 集春營	東營, 集春營
호 위 청	궐내	장용영에 통합	仁政門 밖 月廊
용 호 영	궐내	仁政殿 月廊	仁政殿 月廊
도 총 부	궐내	都摠府 및 四所	都摠府 및 四所
수문장청	궐내	大闕門	大闕門
선전관청	궐내	大內近側	大內近側
내 병 조	궐내	內兵曹	內兵曹

90) 『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 二軍色, 騎兵分把條.

吹螺赤 12명이 입직하는 것으로 되었다.⁹¹⁾ 내병조에는 당상관 1명과 낭관 1명 등 2명이 궐내에 입직하였다.⁹²⁾ 따라서 장용영 혁파 후 동궐에는 선전 관청에 22명, 내병조에 2명이 입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동궐 宿衛體制

『경국대전』兵典 行巡條에 의하면 행순의 대상은 궁궐의 안과 밖 그리고 도성의 안과 밖이었다. 이는 『속대전』, 『대전통편』, 『만기요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궁궐의 안과 밖이 행순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궁궐숙위가 기본적으로 궁성을 중심으로 하여 궁성내 숙위, 궁성문 수위, 궁성외 숙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궐의 숙위체제도 궁성내 숙위, 궁성문 수위, 궁성외 숙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궁궐숙위를 담당하기 위해 입직하는 병력들은 한번 입직하면 3일을 근무하고 교체되었다.⁹³⁾ 이는 병조의 省記色에서 담당하였다. 이를 『만기요람』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기색에서는 입직하는 관원과 장교 이하의 省記를 매일 작성하여 申時에 왕에게 보고하였다.⁹⁴⁾ 省記에는 궁중 안에 입직하는 관원과 장교뿐만 아니라 동영, 서영, 남영, 광지영, 집춘영 등 궁궐 밖의 부대에 입직하는 관원과 장교도 포함되었다.⁹⁵⁾

91) 『대전통편』 병전, 입직조.

92) “本曹堂上官郎官各一員”(『속대전』 병전, 입직조).

93) “凡將士直宿者 三日而遞”(『경국대전』兵典, 入直條).

94) “入直官員將校以下 每日申時 書啓 郎官親呈”(『만기요람』軍政編 1, 兵曹各掌事例, 省記色條).

95) “東營西營南營北營廣智營集春營禁衛營御營廳(중략) 亦自本曹省記”(『만기요람』軍政編 1,

궁중 안에 입직하는 4소와 훈련도감 그리고 금위영의 지휘관 및 내삼청장과 수문장은 省記와 별도로 왕에게 보고하였다. 즉 4소의 위장과 부장은 교체하는 날에 單子를 왕에게 보고하였고,⁹⁶⁾ 훈련도감의 국별장, 파총, 초관, 그리고 금위영의 파총, 초관 및 내삼청장, 수문장은 매 中日마다 즉 3일마다 入啓하여 落點을 받았다.⁹⁷⁾ 이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궁중 안에서 실 병력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궁궐숙위와 관련하여 省記色에서 관장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야간암호인 軍號였다. 軍號는 내병조에 입직하는 당상관이 직접 써서 封押하였으며, 낭관이 승정원에 가서 보고하고 왕의 결재를 받았다. 軍號는 申時에 省記와 함께 보고하였다.⁹⁸⁾

軍號는 모두 29장으로 궁성 문을 잠글 때에 궁궐 안팎의 관청과 각 군영에 분배하였다. 구체적으로 軍號는 御覽 2장, 병조판서 1장, 도총부 1장, 금위대장 1장, 어영대장 1장, 호위대장 1장, 금군별장 1장, 좌포도대장 1장, 우포도대장 1장, 홍화문의 초관 1장, 건양문의 파총 1장, 집현문 초관 1장, 동룡문 초관 1장, 송지문 국출신 1장, 호위별장 1장, 국별장 1장, 내직초관 1장, 내삼청 1장, 동소 1장, 서소 1장, 남소 1장, 북소 1장, 한려 1장, 위장소 1장, 외병조 1장, 북영 1장, 좌순청 1장, 우순청 1장이었다.⁹⁹⁾

위의 軍號 배포처 중 4소, 호위청, 국청, 한려청, 건양문, 동룡문, 홍화문, 집현문, 송지문, 내삼청, 도총부 등은 궁궐숙위병력이 입직하는 곳이었다. 야간에 軍號를 확인하여 응답하지 못하면 야간통행 위반자로 체포하여 다스렸다.¹⁰⁰⁾

兵曹各掌事例, 省記色條).

96) “衛將部將 則替直日 單子入啓”(『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97) “闕內入直將官<訓練都監局別將把總哨官 禁衛營把總哨官 內三廳將 守門將> 番單子 每中日入啓受點”(『만기요람』 軍政編 1, 兵曹各掌事例, 省記色條).

98) “兵曹入直堂上 親書封押 郎官詣呈啓下<申時 與省記并呈>”(『만기요람』 軍政編 1, 兵曹各掌事例, 省記色條).

99) 『만기요람』 軍政編 1, 兵曹各掌事例, 省記色, 軍號條.

궁궐 숙위에서 군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更이었다. 궁성 안팎에서의 순리는 경을 나누어 행하였으므로 각 부대가 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이 경은 관상감에서 측정하였다.

순조대에 관상감은 금호문 밖에 있었다.¹⁰¹⁾ 그러므로 금호문 밖의 관상감에서 측정한 경을 궁궐숙위를 담당하는 병력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장치가 있어야 했다. 그것이 傳漏軍이었다.

동궐의 전투군은 18곳에 배치되었는데, 대궐 안이 12곳 대궐 밖이 6곳이었다. 그곳은 동룡문, 동수구, 어정, 경화문, 광정문, 인정문, 진선문, 마군영, 돈화문, 경추문, 복수각, 영숙문 등이었다.¹⁰²⁾ 이 장소는 동궐의 궁성문과 궁중의 주요지점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금호문 밖의 관상감에서 측정된 경이 전투군을 통해 궁궐숙위 병력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1) 宮城外 숙위

궁성의 숙위는 궁성 밖의 입직군이 수행하는 숙위였다. 동궐의 궁성의 숙위병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련도감의 남영과 광지영 입직군, 금위영의 서영 입직군, 어영청의 동영과 집춘영 입직군이었다. 이들은 궁성의 순라, 別巡邏, 考察, 都巡 등을 통하여 궁성외의 숙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후기의 궁성외 순리는 인조 6년(1628)에 규칙이 정해졌다.¹⁰³⁾ 이후 영조 9년(1733)에 3군문의 별순라 규칙이 정해졌다.¹⁰⁴⁾ 영조 9년 당시 3군문의 별순라 구역은 훈련도감이 집춘영부터 대보단 西牆隅까지, 금위영이

100) “問軍號 不通者 則以犯夜人捕治”(『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 軍號條).

101) 『書雲觀志』 권 1, 官廡條.

102) 『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 二軍色, 馬兵分把條.

103) “仁祖戊辰 定式”(『만기요람』 軍政編 2, 훈련도감, 宮城外巡邏條).

104) “又有別巡邏<英宗癸丑 定式>”(『만기요람』 軍政編 2, 훈련도감, 宮城外巡邏條).

대보단 西墻隅부터 종묘대문 西邊까지, 그리고 어영청이 종묘대문 東邊부터 집춘영까지였다.¹⁰⁵⁾ 아울러 훈련도감은 초경, 3경, 4경의 夜巡을, 금위영은 2경의 야순을, 어영청은 5경의 야순을 담당했다.¹⁰⁶⁾ 이는 영조 당시 궁성의 숙위가 3군문체제였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당시의 3군문 도성수비체제 정비와 관련이 있었다.¹⁰⁷⁾

3군문 도성수비체제는 숙종대의 북한산성 축성을 계기로 기틀을 잡기 시작하여 영조대의 이인좌 난을 겪으면서 강화되었다. 이인좌 난 이후 도성수비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조는 동왕 9년에 3군문의 별순라 구역을 정하였고, 13년에 금군을 강화하였으며, 27년에 守城綸音을 반포함으로써 3군문도성수비체제를 완성하였다.¹⁰⁸⁾

3군문도성수비체제에서 훈련도감은 肅靖門에서 敦義門까지, 금위영은 돈의문에서 光熙門까지 그리고 어영청은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담당하였다. 이는 도성의 북서쪽은 훈련도감이, 서남쪽은 금위영이, 동쪽은 어영청이 담당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구역은 3군문이 담당한 동궐의 별순라 방향과 다르지 않았다.

3군문의 군영들이 위치한 장소를 살펴보면 그 배치도 도성과 궁궐수비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훈련도감의 남영과 광지영,

105) “命三營 環宮墻 定信地 別巡邏<訓營 自集春營止大報壇西墻隅 禁營 自宗廟大門西邊至大報壇西墻隅 御營 自宗廟大門東邊至集春營>”(『영조실록』 34, 9년 4월 경오조).

106) “夜巡<訓鍊都監則初更三更四更, 禁衛營則二更 御營廳則五更>”(『속대전』 병진, 행순조).

107) 인조 이후 훈련도감 등 3군문의 宮城外 巡邏에 대하여는 金鍾洙, 「訓鍊都監의 職務와 都監軍의 活動」(『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鍊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 혜안, 2003), 236-244쪽 참조.

108) 영조대의 3군문도성수비체제에 대하여는 「三軍門 都城守備體제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 육군본부, 1995).

조준호, 「영조대 『守城節目』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金鍾洙, 「訓鍊都監의 職務와 都監軍의 活動」,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鍊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 혜안, 2003, 244-251쪽 참조.

금위영의 서영, 어영청의 동영과 집춘영은 동궐을 에워싼 것이었다. 이중 훈련도감의 남영을 제외한다면 각 군영의 위치는 바로 별순라 담당구역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군문의 야간입직지휘관 중 최고의 지휘관이 숙위하던 莞洞의 훈련도감 北營,¹⁰⁹⁾ 금호문 밖의 금위영 本營,¹¹⁰⁾ 梨峴의 어영청 新營은¹¹¹⁾ 동궐의 별순라를 담당하던 해당군문 군영의 외곽에 있었다. 이는 영조대의 3군문도성수비제도는 바로 동궐의 3군문 궁성의 숙위를 핵심으로 하여 정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¹¹²⁾

장용영 혁파 후 동궐의 궁성의 숙위는 기본적으로 영조대의 3군문 체제로 환원되었다. 이를 『만기요람』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훈련도감은 집춘문의 西邊水門으로부터 拱北門까지,¹¹³⁾ 금위영은 공북문에서 종묘 대문까지의 순라를 담당했다.¹¹⁴⁾ 종묘대문이 금위영의 순라 구역에 포함된 이유는 종묘가 창경궁의 남쪽과 연결하여 동궐과 종묘를 나뉘지 않고 통합적으로 순라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어영청은 종묘대문 동변에서 집춘문 위쪽 上水門까지의 순라를 담당했다.¹¹⁵⁾ 이처럼 장용영 혁파 후의 3군문 궁성의 숙위 구역은 영조 9년에 정해진 구역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군문의 궁성의 순라 시간은 영조대로 환원되지 않았다. 즉 훈련도감의 남영은 초경, 금위영의 서영은 2경, 훈련도감의 광지영은 3경, 어영청의 집춘영은 4경, 어영청의 동영은 5경의 순라를 분담하였는데,¹¹⁶⁾ 이것은 정조대에 정해진 것이었다.¹¹⁷⁾

109) “北營<在莞洞 二百三十五間>”(『만기요람』 軍政編 2, 訓練都監, 公廩條).

110) “本營在金虎門外 三百六十二間 稱新營”(『만기요람』 軍政編 2, 禁衛營, 公廩條).

111) “新營<在梨峴 五百五間>”(『만기요람』 軍政編 2, 御營廳, 公廩條).

112) 동궐 외곽 이외의 3군문 군영은 경희궁 외곽과 훈련원 주변에 위치했다. 이것은 국왕의 경희궁 移御와 도성의 동남방향이 취약한 부분을 대비한 것이라 생각된다.

113) “訓局 自集春門西邊水門 至拱北門”(『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14) “禁營 自拱北門 至宗廟大門”(『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15) “御廳 自宗廟大門東邊 至上水門”(『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16) “南營則初更 西營二更 廣智營三更 集春營四更 東營五更”(『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궁성의 순라는 입직초관 1명이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시행하였다.¹¹⁸⁾ 방법은 담당구역의 처음에서 시작하여 동궐의 궁성외를 모두 돌아 다시 처음 장소로 돌아오는 방식이었으며,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았다.¹¹⁹⁾ 따라서 초경에는 훈련도감의 남영에 입직한 초관 1명이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집춘문에서 출발하여 공북문, 종묘대문 등 궁성을 빙 돌아 다시 집춘문에 도착하는 식이었다. 2경, 3경, 4경, 5경도 마찬가지였다. 경은 전루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야간의 궁성의 순라는 매 경마다 2번씩 총 10번 수행하였다.

그런데 궁성의 순라를 담당할 3군문의 다섯 부대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순라하는 시간 간격도 길었다. 5경 동안 총 10번의 순라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략 한 시간에 한 차례 순라하는 셈이었다. 이에 3군문에서는 담당 구역 안에 별도로 軍舖를 설치하여 숙위를 보완하였다.

훈련도감은 담당 구역 안에 6곳의 군포를 설치하였으며, 금위영은 8곳 그리고 어영청은 6곳에 군포를 설치하였다. 각각의 군포에는 2명의 군사가 배치되었다.¹²⁰⁾ 따라서 궁성 외곽에는 3군문의 다섯 부대 이외에도 20곳의 군포가 더 설치되어 있었다.

궁성의 순라는 별순라, 고찰, 도순 등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다. 별순라는 3군문의 牌將 1명이 입직군 5명을 거느리고 담당구역을 밤새껏 특별 순라하는 것이었다.¹²¹⁾ 별순라는 순라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담당 구역만 순라한다는 면에서, 更に 따라 궁장 전체를 순라하는 궁성의 순라와 구별되었다.

고찰은 파루 후부터 천명까지 3군문의 입직장관 1명이 군사 5명을 거느

117) “四更五更 御營廳”(『대전통편』 병진, 행순조).

118) “以各營入直哨官一員 軍士二十名 分更行巡”(『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19) “周而復始 各巡二次”(『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20) “牆外軍舖二十處<訓局字內六處 ○禁衛字內八處 ○御廳字內六處 每舖軍士二名>”(『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21) “三軍門牌將一人 率入直軍五名 各從字內 達夜別巡”(『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리고 담당구역을 고찰하는 것이었다.¹²²⁾ 이것은 궁성의 순라가 파루까지이므로 파루 이후부터 천명까지의 순라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순은 순라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3군문과 병조에서 확인하는 감찰활동이었다.¹²³⁾

요컨대 장용영 혁파 후 동궐의 궁성의 숙위는 초경부터 5경까지 궁성 밖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3군문의 순라를 기본으로 3군문이 각각의 담당구역을 특별 순라하는 별순라와 고찰 그리고 순라활동을 감찰하는 도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것은 영조대의 3군문 궁성의 숙위로 환원된 부분과 정조대의 변동부분이 혼합된 내용이라고 하겠다.

(2) 宮城門 수위

궁성문 수위는 수문장의 책임하에 수행되었다. 수문장은 동궐의 궁성에 설치된 각각의 문에서 수문병들을 거느리고 궁성문을 수위하였다.

동궐에 입직하는 수문장은 앞에서 본 것처럼 9명이었다. 수문장은 입직문 주변의 작은 궁성문도 책임졌다. 예컨대 정조 8년의 監門節目에 의하면, 小南門은 단봉문의 수문장이, 小東門은 선인문의 수문장이, 북수각은 요금문의 수문장이 그리고 南水閣은 돈화문의 수문장이 아울러 책임졌다.¹²⁴⁾ 동궐의 궁성문 9곳에 입직하는 수문병은 衛將所에서 정하여 파견하였다.¹²⁵⁾

수문병의 숫자도 정해져 있었다. 돈화문에는 수문병 17명과 전투군 2명 등 19명이 배치되었다. 금호문에는 수문병 13명만이 배치되었다. 단봉문에는 10명, 요금문에는 7명, 선인문에는 10명, 홍화문에는 4명, 통화문에는 9명의 수문병이 배치되었다. 경추문에는 4명의 수문병과 전투군 2명 이외에도 금위영의 서영에 입직한 5명의 향군 등 총 11명이 배치되었다.¹²⁶⁾

122) “三營入直將官各一員 率軍士五名 自罷漏時至天明 考察字內”(『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23) “又定校卒各一人都巡 兵曹亦時時都巡 摘奸”(『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24) 『정조실록』 17, 8년 5월 丙子條.

125) “衛將所 分排其立把處所 分送”(『만기요람』 軍政編 2, 二軍色, 騎兵分把條).

수문장과 수문병의 임무는 명칭 그대로 궁성문을 수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궁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것과 門開閉의 두 가지 임무였다.

궁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것은 개인 신분증인 信符를 확인하는 것이었다.¹²⁷⁾ 조선후기에는 신부가 남자의 신분증으로서의 신부와 여자의 신분증으로서의 漢符로 구별되었다.¹²⁸⁾ 따라서 수문병들은 궁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인 신부와 한부를 엄격하게 확인한 후에 출입을 허락해야 했다.¹²⁹⁾

궁성문의 개폐는 매우 중요하여 관련조항이 『경국대전』에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궁성문은 초혼에 달고 평명에 열었다.¹³⁰⁾ 궁성문은 주서, 도총부 당하관, 사약이 승지에게서 열쇠를 받아 열고 다시 열쇠를 승지에게 반납하였다.¹³¹⁾ 이런 규정은 조선후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정조 8년에 감문절목이 제정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정조 때의 감문절목 중 궁성문의 수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각 문의 개폐는 예전의 예대로 승정원이 주관한다. 자물쇠를 잠근 후에 열쇠는 坐直 下位가 친히 받아서 보관한다. 그 출납은 자물쇠를 연후에 자물쇠와 열쇠를 해방 승지가 친히 받아서 보관하고, 신시 이후에는 上 直 하위 승지에게 전해 보관하게 한다.

126) 『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 二軍色, 騎兵分把條.

127) “入闕門 用信符”(『경국대전』 兵典, 符信條).

128) “信<男>漢<女>符”(『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各掌事例, 武備司條).

129) 조선시대 궁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信符를 考察하는 내용은 『세종실록』 18, 4년 12월 甲申條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宮城門을 출입하는 각 사람의 信符는 각 門을 나누어 지키는 護軍과 甲士, 防牌가 考察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전기 五衛體制에서의 규정이다. 당연히 조선후기에는 수문장과 수문병이 궁성문 출입자들의 信符와 漢符를 고찰하였다.

130) “宮城門 初昏閉 平明開”(『경국대전』 兵典, 門開閉條).

131) “宮城門 則注書與都總府堂下官司鑰 開閉 受納鑰匙於承旨”(『경국대전』 兵典, 門開閉條).

- 一. 각 문의 관할은 건양문을 동서의 경계로 한다. 서쪽은 서소와 남소의 양소에서 나누어 관장하는데 병조 담당이다. 동쪽은 동소와 북소의 양소에서 나누어 관장하는데 도총부 담당이다. 수문장은 각기 담당 문의 부근에도 가는데, 소남문은 단봉문의 수문장이 아울러 관할하고 소동문은 선인문 수문장이 아울러 관할한다. 만약 삼가지 않은 일이 있으면 엄범으로 勸處한다.
- 一. 각 문의 자물쇠 중에 만일 파손되어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해당 문의 수문장이 4소 중 해당 소의 부장과 함께 각각 그 字內에 가서 고하면, 병조나 혹은 도총부의 낭청이 친히 가서 살펴서 승정원에 고한다. 고치는 절치는 신시 이전에는 해당 승지방에서 관장하고, 신시 이후에는 坐直 승지가 관장한다.
- 一. 각 문을 개폐할 때 監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돈화문, 요김문, 단봉문은 선전관이 담당한다. 김호문은 주서가 담당한다. 홍화문, 선인문, 통화문은 도총부의 낭청이 담당한다. 각 문의 監鑰는 해당 문의 수문장 및 司鑰이 함께 거행한다.
- 一. 병조 낭청 및 도총부 낭청이 夜巡할 때 각 문의 자물쇠는 그 字內에 따라서 해당 수문장과 함께 살펴는데 소동문, 소남문도 일체로 昭檢한다.
- 一. 각 처 水門의 중대한 열쇠를 該所에 보관하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하다. 그러므로 남수각 수문은 돈화문 수문장이 아울러 관리하고, 북수각 수문은 요김문 수문장이 아울러 관리한다. 파손된 곳의 수리와 照檢때 살펴는 등의 절차는 다른 문의 예에 의해서 시행한다.
- 一. 도성문과 궁성문을 잠그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다. 지금부터 자물쇠를 수리할 때에는 호조 낭청이 몸소 監造하고, 판서가 句檢한다.¹³²⁾

(3) 宮城內 숙위

궁성내 숙위는 궁성외 숙위와 반대로 궁성 안의 입직군이 수행하는 숙위였다. 동궐 안의 숙위병력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훈련도감 입직군, 금

132) 『정조실록』 17, 8년 5월 병자조.

위영 입직군, 용호영 입직군, 호위청 입직군, 도총부 입직군, 내병조 입직관, 선전관 등이 있었다. 이들은 4소, 율내 각문, 정전 등 궁중 각처에 입직하였다. 『만기요람』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동궐의 4소 중 남소는 금호문 안에, 서소는 요금문 안에, 동소는 선인문 안에, 북소는 경화문 동쪽에 위치하였다.¹³³⁾ 4소는 각각 동궐의 일정 구역 순라를 담당하였다. 즉 북소는 통화문에서 집례문까지, 동소는 집례문에서 건양문까지, 남소는 건양문에서 경추문까지, 서소는 경추문에서 集成門 밖의 대보단까지 담당했다.¹³⁴⁾ 4소의 순라 구역을 연결하면 동궐의 동쪽, 남쪽, 서쪽의 궁성 안이 되었다.

4소의 중간에는 궁성의 숙위군과 마찬가지로 군포를 설치하였다. 즉 동소에는 5개, 서소에는 3개, 남소에는 6개 그리고 북소에는 1개의 군포가 설치되었다. 각각의 군포에는 기병 2명이 배치되었다.¹³⁵⁾

4소를 통합 지휘하는 곳이 도총부였다. 『동궐도』에 의하면 동궐의 도총부는 선인문 안쪽에 있었다.

4소에서는 궁성의 순라와 마찬가지로 경을 나누어 순라를 돌았는데, 위장과 부장이 각각 군사 5명을 거느리고 도는 방식이었다. 순라는 초경 3點 初부터 시작하여 파루 때까지였다.¹³⁶⁾ 순라는 상대하는 두 개의 소의 위장과 부장이 한 조가 되어 경마다 번갈아 담당구역을 도는 것이었다. 예컨대 초경에 동소의 위장과 서소의 부장이 순라를 돌았다면, 다음 2경에는 남소의 부장과 북소의 위장이 순라를 도는 것이었다.¹³⁷⁾ 3경, 4경, 5경도 마찬

133) “南所<在金虎門內> 西所<在敦化門內> 東所<在宣仁門內> 北所<在景化門東>”(『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134) “四所字內<北所自通化門至集禮門 東所自集禮門至建陽門 南所自建陽門至景秋門 西所自景秋門至集成門外大報壇>”(『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135) “舖軍<(중략) 每舖每夜 騎兵各二名 舉行傳漏 行巡來到 則應軍號>”(『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136) 『만기요람』 軍政編 1, 五衛, 衛將所條.

137) 『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가지였다.

궐내의 문들 중에서 중요한 문에는 훈련도감과 금위영의 병력이 입직하였다. 예컨대 금호문과 홍화문에는 각각 100명씩 훈련도감의 병력이 입직하였다. 이외에 집현문, 명례문 영숙문, 승지문에는 훈련도감 병력이 입직하였으며 건양문, 동통문에는 금위영의 병력이 입직하였다. 건양문, 집현문, 동통문은 동궐의 남쪽 방향에, 승지문은 동쪽 방향에 그리고 명례문과 영숙문은 북쪽 후원에 있던 문으로서, 이곳의 입직군들은 궐내 중요지점에서 거점경호를 했다고 할 수 있다.

4소와 궐내 각문의 입직병력은 도총부와 내병조의 입직낭관들이 감독하였다. 건양문을 기점으로 병조의 입직낭관은 서쪽을 감독하고, 도총부의 입직낭관은 동쪽을 감독하였다.¹³⁸⁾ 도총부와 내병조의 낭관은 궁성내 순라, 입직군의 근무 상황, 문과 자물쇠 등을 전반적으로 규찰하였다.¹³⁹⁾ 이를 위해 도총부와 내병조의 낭관은 밤마다 순찰을 돌았으며,¹⁴⁰⁾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승정원에 보고하였다.¹⁴¹⁾

동궐의 정전인 인정전 구역에는 용호영과 호위청의 병력이 입직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용호영의 병력은 인정전 월랑에서, 호위청의 병력은 인정문 밖의 월랑에서 숙위하였던 것이다. 왕조시대 궁궐의 핵심이 정전이라는 점에서 이곳에 입직하던 용호영과 호위청의 병력은 동궐숙위의 핵심 병력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용호영과 호위청의 병력들을 禁軍이라고 하였다.

138) “兵曹總府入直郎官 逐夜巡檢 按察門鑰 「兵曹建陽以西 總府建陽以東」”(『만기요람』 軍政編 1, 巡邏條).

139) “闕內行巡及軍兵入直等事 無所不檢”(『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各掌事例, 結束色條).

140) “定宗辛丑以後 逐夜巡察”(『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各掌事例, 結束色條).

141) “翌朝 以無事形止 稟于政院”(『만기요람』 軍政編 2, 兵曹各掌事例, 結束色條).

4. 맺 음 말

순조 2년의 장용영 혁파는 이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궁궐숙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혁파이전의 장용영이 궁궐숙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혁파 이전의 장용영은 명정전 서월랑, 인정문 밖 월랑, 집례문, 동룡문, 건양문 등 동궐의 주요 구역에서 숙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용영이 혁파되자 이 구역을 다른 부대에서 대체 숙위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숙위구도가 변동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체로 장용영 창설 이전의 3군문과 금군 중심의 궁궐숙위체제로 환원하는 것이었지만, 단순한 환원이 아니라 정조에 의해 강화된 궁궐숙위를 일정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장용영이 담당했던 궁궐숙위는 주로 훈련도감과 금위영에 의해 대체하였다. 장용영에서 입직하였던 명정전 서월랑에는 훈련도감의 무예별감이 계속 입직하였으며 집례문(후에는 송지문)에는 훈련도감의 국출신이 대신 입직하였다. 동룡문과 건양문의 입직은 금위영에서 담당하였다. 인정문 밖의 월랑에는 장용영에 통합되었다가 장용영의 혁파를 계기로 분리되어 나온 호위청의 군관이 계속 입직하였다. 이 결과 장용영 혁파 후의 동궐숙위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군문과 함께 용호영, 호위청 등의 금군 및 4소, 수문장청, 선전관청, 내병조 등의 병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궐의 숙위체제는 궁성의 숙위, 궁성문 수위, 궁성내 숙위로 구성되었다. 궁성의 숙위는 훈련도감의 남영과 광지영 입직군, 금위영의 서영 입직군, 어영청의 동영과 집춘영 입직군이 담당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조대의 3군문 궁성의 숙위체제로 환원된 것이었다. 궁성의 숙위는 초경부터 5경까지 궁성 밖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3군문의 순라를 기본으로 3군문이 각각의 담당구역을 특별순라하는 별순라와 고찰 그리고 순라활동을

감찰하는 도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궁성문 수위는 수문장과 수문병이 담당하였다. 동궐에는 9명의 수문장이 9곳의 궁성문을 수위하였다. 궁성내 숙위는 4소, 궐내 각문, 정전 등에 입직하던 도총부 병력, 훈련도감 병력, 금위영 병력, 용호영 병력, 호위청 군관, 선전관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도총부와 내병조에 의해 감찰되었다. 결국 장용영이 혁파된 후의 순조대 동궐숙위는 장용영 창설 이전의 3군문 중심의 궁궐숙위체제로 환원하는 한편 정조에 의해 강화된 궁궐숙위를 일정 반영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순조대의 동궐숙위가 갖는 역사성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려면 순조대 이후는 물론 이전 시대인 정조대 궁궐숙위체제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정조대의 궁궐숙위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인 숙종, 영조대 궁궐숙위체제와의 비교연구가 요망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순조대라고 해도 동궐에서 西闕로 이어했을 때의 서궐숙위체제, 또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이 정변했을 때의 동궐숙위체제, 국왕의 행행 중 궁궐숙위체제 등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은 차후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06. 4. 17,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장용영혁파, 동궐숙위체제, 궁내성 숙위, 궁성문 수위, 궁성내 숙위

<ABSTRACT>

Abolition of the Brave Garrison and the Military System for
Eastern Palace Guard by King *Sunjo*, *Joseon* Dynasty

Shin, Myeong-ho

The Brave Garrison(壯勇營) which was established by King *Jeongjo*(正祖) was abolished in 1802(純祖 2) by Kim, Queen Dowager(大王大妃 金氏). The abolition of Brave Garrison had great influence in politics, economics and so on in early *Sunjo*(純祖) period. The Military System for Eastern Palace Guard(東闕宿衛體制) was also influenced greatly by the abolition of Brave Garrison. because the Brave Garrison played important role in Eastern Palace Guard.

Before the abolition, the Brave Garrison have guarded *Myeongjeong* Hall(明政殿), outer *Injeong* Hall(仁政殿 外廓), *Jipyae* Gate(集禮門), *Dongryong* Gate(銅龍門), *Geongyang* Gate(建陽門) in eastern palace. so after the abolition of Brave Garrison, the other garrisons(軍營) should take over the role of Brave Garrison in Eastern Palace Guard. it was mainly substituted by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訓練都監) and Capital Garrison(禁衛營).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 have substituted the guard of *Myeongjeong* Hall(明政殿) and *Jipyae* Gate. the guard of *Dongryong* Gate and *Georyang* Gate was substituted by capital garrison. and the guard of Outer *Injeong* Hall(仁政殿 外廓) was substituted by Guard Command(扈衛廳). after all, after the abolition of Brave Garrison, the Guard of Eastern Palace was carried by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 Capital Garrison, Royal Guard Command(御營廳) which were Three Army Garrisons(三軍門), Royal Guard

(禁軍), Guard Command, the Five Military Commands Headquarters(五衛都總府), Gate Commander(守門將) and gate soldiers.

This means that after the abolition of Brave Garrison, the military system for Eastern Palace Guard principally returned to that of *Yeongjo*(英祖) period.

The military system for eastern palace guard was composed of Guard Outside the Palace Wall(宮城外 宿衛), the Palace Wall Gate Guard(宮城門 守衛) and Guard Inside the Palace Wall(宮城內 宿衛).

The Guard Outside the Palace Wall was carried out by Three Army Garrisons. Three Army Garrisons Forces carried out patrol outside the palace in night.

The Palace Wall Gate Guard was carried out by 9 gate commanders and tens of gate soldiers.

The Guard inside the Palace Wall was carried out by the Five Military Commands Headquarters,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 Capital Garrison, Royal Guard and Guard Command.

Key Words : Abolition of brave garrison, Military system for eastern palace guard, Guard outside the palace wall, The palace wall gate guard, Guard inside the palace wall